



광주 동구청 미화원 김동길씨의 마지막 거리청소

“이 빗자루가 1,440 번째네요”

광주 도심을 30년 동안 청소했던 동구청 거리미화원 김동길(59·광주시 동구 용산동)씨가 정년 퇴직을 앞두고 마지막 빗자루질을 했다. 지난 20일 오전 9시 광주시 동구 남동 양영화원 앞 도로. 김씨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대충광고 전단지·확인 홍보물 등 각종 쓰레기가 한 곳으로 모였다. ‘버리는 손 미운 손, 줍는 손 고운 손’이라더니 김씨의 ‘고운 손’이 30여 분 만에 손수레에 쓰레기를 가득 채우자 거리가 환해졌다.

청소원 30년...30일 정년퇴직

이제 다시 빗자루를 들 필요 없지만 김씨는 빗자루 살에 묻은 먼지와 작은 돌을 털어내는 일을 잊지 않았다. 김씨가 지난 30년간 사용한 대빗자루는 1천440개. 한 달에 4개의 빗자루가 지급되지만 3일만 되면 빗자루 살이 거친 아스팔트에 닳곤 했다. 몽당 빗자루에 정년퇴임을 앞두고 마지막 거리 청소엔 나선 김동길씨가 쓰레받기에 쓰레기를 쓸어 담으며 환하게 웃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대나무 살을 덧붙여도 일 주일 버티기가 힘들다. 김씨는 이날 수거한 한 수레의 쓰레기와 자신에게 지급된 마지막 1천440번째 빗자루를 싣고 100여m 떨어진 동구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평생의 소임을 끝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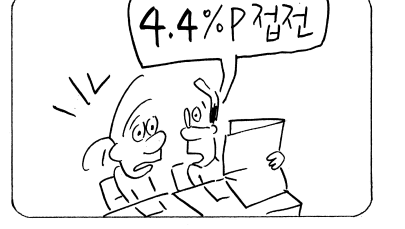
“6월항쟁때 눈물로 최루탄 치워”

오는 30일 정년 퇴직하는 김씨에게 광주 전역을 누비며 격동의 세월을 보냈던 기억이 아련하기만 하다. 보성이 고향인 김씨는 지난 1977년 광주로 이사 온 뒤 첫 직업으로 동구청 거리미화원을 택했다. 농사만 짓던 그에게 한 달에 7천원의 월급이면 아내(58)와 두 살배기 큰 딸과 먹고 사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200~300원만 내면 만나게 자랑면도 먹을 수 있었다. 거리에 쓰레기도 얼마 없었다. 지금은 광주시 도시에 각종 홍보물과 전단지까지 홍수를 이루지만 당시만 해도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는 ‘미운 손’이 없었다. “요즘 사람들은 쓰레기를 더 많이 버리는 것 같아요. 총장로는 쓸고 나면 쓰레기가 버려져 ‘청소부들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살 때도 많

아요. 우리는 한 해 5일가량 쉬면서 휴일·명절에도 새벽 청소를 하는데도 말입니다” 1980년 5·18의 슬픈 역사에도 광주지역 청소부들은 함께했다. 시민의 울분을 달래주던 ‘민주시민회보’ 등 하루에도 수만 장씩 뿌려지던 각종 전단지를 치워 낸 사람도 김씨였다. 당시 김씨는 금남로 일대 청소를 담당했고, 진압군의 총칼을 피해 새벽에 남몰래 청소를 하곤 했다. 6월항쟁 때는 최루탄 가루를 쓸어내기 위해 울기도 많이 했다. 전투경찰과 대치 중 종종 투석전이 벌어졌고, 김씨는 시위가 끝난 텅 빈 거리에서 돌들을 쓸어 담아야 했다. 최루탄 가루 때문에 김씨의 얼굴은 콧물과 눈물이 범벅이 됐지만 음료수를 내오고, 거리에 물을 뿌려주는 인식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

“광주 도심은 내 인생의 전부”

거친 아스팔트에 빗자루가 닳아지듯 3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김씨는 “청소부를 하며 셋 딸을 시집 보내고 막내 딸을 성인으로 키워낸 나에게 광주 도심은 인생의 전부였다”며 환하게 웃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CC construction services, including DS 건설(주) and (주)본드나리. It lists contact information and services like KCC painting and construction.

농민들이 도정 맡긴 쌀 빼돌려

농협 미곡처리장 소장 등 2명 구속

전남지방경찰청은 22일 농민들이 도정을 맡긴 쌀을 빼돌려 판매한 안도군 모 농협 지점장 장모(46)씨와 미곡처리장 전 소장 김모(49)씨 등 농협 직원 2명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또 전 미곡처리장 공장장 문모(41)씨 등 농협직원 3명을 같은 혐의로, 쌀 판매업자 전모(41)씨 등 3명을 장물취득과 알선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농민들이 도정을 맡긴 쌀 248t을 빼돌려 판매해 2억9천500만원을 챙기고 기차재 구입 가격

을 부풀려 6천만원을 착복하는 등 모두 4억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의상 판매 거래약정을 작성하고 채권을 확보해야 하는데도 약정서 없이 거래해서 공급, 10억8천만원을 회수하지 못해 농협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 농협은 부실경영으로 2005년 12월 합병되면서 공적자금 60억 원이 투입됐으나 지난 4월 100억 원 규모의 부실이 드러나 농협중앙회로부터 합병병고를 받은 상태이며 미곡처리장에서만 매년 2억원 가량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형기자 glee@kwangju.co.kr

주말 오락가락 장맛비

토요일인 23일 오후 늦게 광주·전남지역이 다시 장마권에 접어들면서 일요일까지 비가 계속될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제주도 남쪽 해상로 물러나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던 장마전선이 23일 다시 북상하면서 광주·전남지역은 오후부터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다”며 “예상강수량은 5~20mm로 그 양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보했다. 낮 최고기온은 24~28도까지 올라 한 낮에는 후텁지근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또 “토요일 오후부터 시작된 비가 휴일인 24일까지 계속되면서 낮 최고기온은 전날보다 3~4도 낮아져 더위가 한풀 꺾이겠다”며 “휴일인 24일, 곳에 따라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으니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1일부터 광주·전남지역에 시작된 장맛비는 22일 오후 5시 현재 여수 33.5mm를 최고로, 장성 24.5mm, 담양 24mm·광주 12mm를 기록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계곡물에 몸 담으면 과태료 20만원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계곡물을 찾아 물속에 몸을 ‘종말’ 담갔다가는 20만원이 손익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2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18개 국립공원의 61개 계곡에서 손, 발을 담그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음”이라는 내용의 ‘단속대상’이라는 내용의 공지를 발표했다. 계곡에 몸 전체를 담그는 행위는 목욕, 수영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적발시 자연공원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첫 적발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2차 적발시 40만원, 3차 적발시 6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관리공단 측은 계곡에 몸을 담근 피서객 적발시 “다음에는 주의해야 한다”며 계도 조치를 하지만 행위 정도가 심하거나 ‘물 밖으로 나오라’는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실제로 지난해 7~8월 국립공원에서 모두 30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는데 10건이 계곡에 몸을 담그거나 목욕, 세탁한 경우다. /연합뉴스

명사십리 해수욕장 백사장 폐기물 묻은 업체 또 있다

건설사·폐기물 업체 수사 확대

(속보)완도 명사십리 해수욕장 건축 폐기물 불법매립 수사 과정에서 4년 전 다른 업체가 수사에 달하는 건축 폐기물을 백사장에 몰래 파묻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2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에 따르면 완도군청 전·현직 감독 공무원 A(38)·B(31)씨와 시공업체 현장 책임자 C(38)씨, 포코레인 기사 D(35)씨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지난해 실시된 해수욕장 상수도 및 하수도 관로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건축 폐기물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됐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해경은 특히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2002년에도 명사십리 해수욕장 탐방로 콘크리트 도로 공사 시 발생한 건축 폐기물 조각 약 60t을 백

사장에 불법 매립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당시 시공사인 S토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고 있다. 해경은 다음중 중 상수도 및 하수도 관로공사 시공업체인 D건설사 대표와 이를 위탁 처리한 J환경 대표 등을 소환해 현장에서 발견한 건축 폐기물 인 가로 1m 세로 1m 크기의 콘크리트 덩어리와 가로 1.6m 세로 1.8m 크기의 옛 음용수대가 원형 그대로 묻혀 있었던 경우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성환기자 lsh@kwangju.co.kr

사이 등 가수 3명 병무청 행정처분 의뢰

병역특례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 동부지검은 22일 병역특례 업체에 편입해 부실복무한 사실이 드러난 사이 등 가수 3명을 병무청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한평간 차장검사는 브리핑에서 “가수 사이가 근무했던 업체 사장을 기소하면서 사이에 대해 오늘 병무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인기 탤스그룹 전 멤버였던 가수 K씨와 L씨도 함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밖에도 300여 개 특례업체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추가 소환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다음주까지 5~6명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기아차 부분파업 연기

기아차 노조가 삼급단체인 금속노조의 ‘정치 파업’ 지침에 따라 당초 26일부터 3일간 14시간 부분파업하기로 한 일정을 27~29일로 조정했다.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에 따르면 27일 올해 주·야간조가 2시간씩 임금협상과 관련한 파업찬반투표를 거쳐 28·29일 각각 4시간·6시간씩 부분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세계여성평화포럼 대학생 지원단 오는 26일부터 3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07 세계여성평화포럼’에 참가할 대학생 지원단 300명이 22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여성발전센터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Weather forecast for June 23rd (Friday, 9th of the lunar month). It includes a table with temperature ranges for various regions (e.g., 광주, 서울, 대전) and a map of Korea showing weather patterns. It also lists sunrise and sunset times and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weather service.

발암성 우려 회수 조치

살충제 슈퍼 등서 유통 식약청이 발암성 우려로 회수 조치를 내린 살충제 슈퍼 등 일반 소매점에서 여전히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가 발암 우려로 제조금지 및 회수 조치가 내려진 ‘디클로르보스’ 함유 살충제 슈퍼·페기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부 업소에서 여전히 문제의 성분이 함유된 살충제를 판매하고 있었다고 21일 밝혔다. 유통되고 있는 디클로르보스 성분 함유 제품은 ‘디비케이칼피프’ ‘삼성킬라 에어로솔’ ‘한국디비케이 흡토피아’ ‘동호제약 스토킬라’ ‘아킬라’ ‘하이킬라’ ‘종근당 종큐 에어로솔’ 등이다. /연합뉴스

‘여중생 성매매’ 연루자 130명 소환조사 “신고하면 나도 처벌 받는다” 성매수자들 감금 호소 외면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가출 여중생 감금·성매매 사건’ 연루자 130명 소환 조사를 위해 ‘성소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중에는 ▲H·K 등 국내 유명 대기업 직원 5~6명 ▲A(45)교수 등 광주지역 4년제 대학 교수 2명 ▲약사 1명 ▲서울지역 모 대학의 대상 B(20)군 ▲피부와 의사 C(45)씨 ▲서울지역 병원 의사 D(31)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피부와 의사인 C씨는 매년 10만~20만원을 주고 9차례에 걸쳐 피해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었으며, 약사 등의 의료계 종사자들은 여중생의 상처를 치료해 주기는 했지만 “나도 처벌받는다”며 구조 요청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매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대부분 현금 결제를 했고, 피해 여중생과 휴대전화를 주고 받으면서 수시로 성매수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미 구속된 진모(여·20)·김모(20)씨로부터 넘겨받은 인터넷 채팅 아이디·메신저 대화 내용·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800여명을 모두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성매수자가 800여명에 달하고, 대부분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수사가 장기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복도식 아파트만 골라 18차례 절도

○아파트 복도의 방범창이 허술한 점을 악용, 복도식 아파트만 골라 20대 절도범이 경찰에 달미. ○광주 광산경찰청은 지난 19일 오후 8시에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홈도(29)씨의 아파트에 침입, 시계를 훔치는 등 18차례에 걸쳐 광주 시내 아파트를 돌며 1천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온 김모(22)씨에 대해 22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김씨는 추가 범행을 추궁하는 경찰에게 “나는 복도식 아파트만 상대하지 절대로 계단식 아파트는 털지 않는다”며 “복도식 아파트는 들어가기도 쉽고 달아나기도 좋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 ○경찰은 “김씨는 범행장소를 미리 찾아가 이동 경로를 분석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짰 뒤 물건을 훔쳐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교묘한 수법에 고개를 절레절레.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